

# BTS, 유엔서 특별한 7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방탄소년단〉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행사 참석  
한국가수 최초 유엔총회서 연설  
리패키지 앨범 ‘빌보드 200’ 19위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펼쳐 연일 화제를 모았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낮 뉴욕 유엔본부 신락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가수 유엔총회 행사장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청년(Youth) 2030’ 프로그램 중 교육부문 파트너십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구테흐스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이 함께했다.

김용 총재는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방탄소년단이 이 자리에 있다”고 소개했고, 곧이어 방탄소년단 7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단상 앞에 섰다.

‘맴몬스터’로 불리는 리더 RM(24·본명 김남준)이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영어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냈다.

RM은 먼저 “서울 근처의 일산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렇지만 9~10살 무렵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고,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자신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잃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꿈꾸지 말고 실현해보자고 생각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생각했다”면서 “저에게는 음악이라는 도피처가 있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RM은 “사람들이 ‘BTS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멤버들이 있었고 아미(ARMY) 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수하고 단점이 있지만 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달라. 여러분의 스토리를 얘기해달라”고 강조했다.

7분간 이어진 진솔한 연설에 참석자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연설을 들은 김정숙 여사는 유엔본부 회의



케이팝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신락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의 새로운 청소년 어젠다인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김정숙 여사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장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나 “청소년들에게 힘이 돼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이날엔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발 올림’이라며 이날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발언과 김남준의 연설을 나란히 소개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니세프와 손잡고 세계 아동·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9위를 차지했다.

25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차트를 보면 지난달 24일 발

매인 이 앨범 순위는 지난주에 걸친 4계단 하락했지만 4주째 상위권에 머물렀다. 최초 진입 당시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앨범 타이틀곡인 ‘아이돌’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순위권에 벗어났다. 이 노래는 첫째 주 11위, 둘째 주 8위, 셋째 주 9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63주 연속 1위로 최장기간 정상을 지키고 있으며, ‘아티스트 100’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28~29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러브 유어셀프’ 투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 김혜수 “음료는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NO플라스틱 챌린지 첫주자...다음주자 정우성 지목

배우 김혜수가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NO(노) 플라스틱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섰다. SBS가 26일 밝혔다. (사진)



전날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와 ‘SBS 8뉴스’에서 공개된 ‘NO 플라스틱 챌린지’ 첫 편에서는 배우 김혜수의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인터뷰에서 김혜수는 평소 사용하는 텀블러를 가져와 음료를 주문하고, 촬영 중 쉬는 시간에도 해수면 상승과 과대 포장에 걱정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해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김혜수는 ‘NO 플라스틱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는 배우 정우성과 한 지민을 지목하며 “항상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회가 왔으니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비디오머그는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구하라’ 등 플라스틱 쓰레기 실태를 돌아보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NO 플라스틱’ 시리즈 영상을 제작했다. 또 배우 김혜수 편을 시작으로 ‘NO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 향후 자체 제작한 텀블러를 활용해 독자 참여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추석 극장가 승자는 ‘안시성’...300만명 돌파

영화 ‘안시성’이 추석 연휴 극장가를 평정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과 배급사 뉴에 따르면 ‘안시성’은 개봉 8일째인 이날 누적 관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신과함께-인과 연’에 이어 가장 빠른 흥행 속도다. 지난 19일 개봉한 ‘안시성’은 다른 경쟁작들과 비슷하게 출발했으나 갈수록 뒤흔음을 받으며 하루 관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개봉 첫날 12만3000명에서 이틀째 13만3000명, 사흘째 21만1000명으로 늘었고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2일에는 40만명 대로 올라선 뒤 25일에는 하루 79만4000명을 동원했다. 2위 ‘명량’과는 격차를 배 이상 벌렸다.

관객들 사이에선 러닝타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안시성 전투장면이 화려하고 박진감 넘친다는 호평이 상돈다.

조승우·지성이 호흡을 맞춘 ‘명량’은 추석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2위를 지켰다. 풍수지리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전날 34만2000명을 불러모아 누적 관객 수는 142만3000명으로 늘었다.

손예진·현빈 주연 ‘협상’은 3위를 유지했다. 지금까지 이 영화를 본 관객은 110만5000명이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테마가행 길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추석특집 주문을 잊은 음식점 1~3부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50 UHD 맨드롱 또뚝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혈성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판다랑 55 양로 남북정상회담 특집 다큐 평화의 맛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영상앨범 산(재)	15 양로 추석특집 다큐 고향의 맛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마이크로 사파리, 집)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쿵
05:30 통일의 길 (도란복양단)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가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크 시선	19:50 배워서 남줄(재)
08:00 당동당 유치원1~2	〈우울증이 어때서요?〉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30 로보가 폴리	〈그 여름의 끝, 그리스 섬 기행 - 환상군도 스포라데스〉
08:45 랄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쿵	15:15 파파리카	〈여름 밤자기행-청산에 살라 하네〉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다크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가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30 랄랄라 뽀우(재)	25:05 지식채널e
〈발사믹 안심스테이크와 수박샐러드〉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7일 (음 8월 18일 壬戌)

<p><b>子</b> 36년생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48년생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60년생 폐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 하라. 72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84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60</p>	<p><b>午</b> 42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할 수 있다. 54년생 조짐이 현상을 동반하여 행운을 낳는다. 66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78년생 생방간의 침예한 대립으로 불꽃 튀겠다. 90년생 단안을 내릴 단계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62, 00</p>
<p><b>丑</b> 37년생 가지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느니라. 49년생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이 편하다. 61년생 과정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대단히 달콤하리라. 73년생 가법게 주고 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85년생 관심을 갖고 있어 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2, 75</p>	<p><b>未</b> 43년생 진흙탕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보인다. 55년생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백번 나올 것이다. 67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전망이 밝아진다. 79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풀러 갔다가 오히려 얽히게 된다. 91년생 진중한 행동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98, 84</p>
<p><b>寅</b> 38년생 해낼 수 없는 일로 보인다. 50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62년생 감당하지 못 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74년생 그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씩이 트는 국면이다. 86년생 모순점이 보인다면 확실히 배제하라. 행운의 숫자 : 67, 32</p>	<p><b>申</b> 44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6년생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68년생 유동성이 강하니 탄력적으로 대처 해야겠다. 80년생 계획 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92년생 차체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9, 45</p>
<p><b>卯</b> 39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51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편함이 사라지리라. 63년생 중차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75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87년생 초심대로 임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행운의 숫자 : 26, 37</p>	<p><b>酉</b> 45년생 누가 먼저갈 것도 없이 일제히 나서는 양태이다. 57년생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69년생 생의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느니라. 81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93년생 주의다 한다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21, 55</p>
<p><b>辰</b> 40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52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64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76년생 활달한 잘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88년생 계속 나아가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14</p>	<p><b>戌</b> 34년생 협힘이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니라. 46년생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58년생 적합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70년생 지속적인 노력과 성실함이 절실한 경로에 놓여 있다. 82년생 족대를 갖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3, 93</p>
<p><b>巳</b> 41년생 처신에 따라서 상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53년생 살펴만 보아도 쉽게 파악 될 것이다. 65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77년생 균형을 잃었거나 획일적이지 않은지 살펴 볼 일이다. 89년생 일부부분부터 윤곽이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48, 19</p>	<p><b>亥</b> 35년생 결실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바나 마친가지이다. 47년생 약전후가 예상되니 사전에 단속을 잘 하자. 59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쾌거가 있다. 71년생 앞을 가릴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83년생 직접 행해야 얻는 바가 많겠다. 행운의 숫자 : 73, 44</p>